

# 깐깐한 야당 의원이 되레 도움... 곰탕 먹으며 이룬 협치

The JoongAng Plus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18

내가 제5공화국 마지막 재무장관(제32대)으로 일하고 있던 1987년 6월에 소위 '6·29 민주화 선언'이 있었다. 이어서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다. 당시 나는 당연히 88년 2월 제6공화국 출범 때까지 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선 후 얼마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나를 청와대로 불렀다.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얘기를 했다. 경제 정책은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재무장관인 나는 6공 첫 내각에 유임하도록 노 당선인과 뜻을 같이했다고 했다. 외교와 안보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최광수 외무장관도 유임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6공 내각에 유임된 장관은 우리 두 사람 외에도 몇 명 더 늘어났다. 지역 안배 등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제6공화국 초기 조각 발표가 있기 전에 노 당선인은 나를 수차례 삼청동 소재 대통령 당선인 사무실로 불렀다. 경제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과 특히 청와대 경제비서실의 역할과 인선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나는 이 기회에 제6공화국 초기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안정화의 기반 위에서 명실상부한 민간 주도 경제운영과 개방체제 구축을 완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구조 개편을 위한 금융자유화 시책을 먼저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물론 청와대 경제비서진과 주요 경제부처 인사도 이러한 경제 국정 방향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인사에 대한 의견도 개진했다. 그리고 재무부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 건도 했다. 특히 행정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한 국세청장의 경우 그 이전까지는 거의 모두가 전통 재무관료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로 보임돼 왔다. 그 대신 고위 재무관료를 은행과 금융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내부 승진 기회는 줄어들고,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자유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6공 초기 조각에서는 우수한 재무관료를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정부와 금융기관의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상한 대로 조각 과정에서 과거 전통을 깨고 국세청장을 전통 재무관료로 임명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나의 건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장관 취임 후, 나는 당시 재무부 1·2차관보를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으로 각각 승진 발령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졌던 금융권 인사 때에 당시 국책은행이었던 국민은행장을 파격적으로 내부승진 인사로 선임토록 했다. 재무 관료의 국세청장 임명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88년 2월에 제6공화국이 출범했고, 나는 33대 재무장관으로 유임되었다. 내가 계속해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많았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경제운영 패



노태우 대통령(오른쪽)이 제6공화국 출범 초기인 1988년 3월 15일 청와대에서 사공일 재무장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중앙포토]

러다임 전환을 위한 세제·금융 부문 개혁과 개방체제 확립을 위한 외환·자본시장의 단계적 자율화 등이 시급했다. 특히 금융의 자율화를 위해 그동안 힘들여 추진해 온 부실 기업 정리 업무를 마무리해야 했다. 그리고 금융 자율화의 궁극적 목표인 금리 자율화를 실행하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내가 경제 수석과 재무장관으로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오던 업무여서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어 큰 다행이었다.

6공 출범과 함께 국내 정치 여건이 크게 바뀌었다. 나와 재무부 실무진은 우선 과거 정책 청산 업무에 매달려야 했다. 6공 출범 후 실시된 88년 4월 13일 13대 총선 결과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다. 그리고 70년대 초에 중단했던 국정감사가 16년 만에 부활했다. 정치권에는 5공화국 정부가 비공개리에 처리한 '제삼자 인수' 방식의 부실 기업 정리가 중요한 정치 이슈로 부각되어 있었다. 정치권은 정부가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고 한국은행 특별용자 제도를 활용해 인수 기업에 큰 특혜를 주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정치자금 수수하는 등 비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하고 있었다. 특히 나는 경제수석과 재무장관으로서 전임 재무장관들과 함께 부실 기업 정리 업무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 공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장관 취임 직후에 나는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와 국회청문회, 검찰 조사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국회 본회의와 재무위원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의 질의·응답 준비에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과정을 경제수석 시절부터 사심 없이 추진해 온 경제 정책과 그 내용을 정치권에 설명하고 소통할 귀중한 기회로 생각하고 긍정적 자세로 준비했다.

실제로 국회 재무위의 질의·응답 과정은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좋은 소통 기회였다. 당시 재무위는 총 29명 중 여당인 민주정의당(민정당) 의원 12명에 불과했다. 야당은 김대중 총재의 평화민주당(평민당),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민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공화당)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7명에 달했다. 물론 나는 수시로 여야 의원 다수와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 교환을 하고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소수인 여당 의원들과는 그 전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지만 일면식도 없었던 다수 야당 의원들과의 사전 대화와 접촉은 필수적이었다.

당시 재무위의 최연장자로 깐깐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평민당 홍영기(국회부의장 역임) 의원과의 개별 만남과

**여소야대 국회, 협치 공들였다**  
**'경남기업 인수' 파헤치던 야당에**  
**당시 내막·배경 수시로 공유**  
**결국 정책지원 약속까지 받아**

**6공 출범 뒤 금융자유화 유지**  
**국세청장에 우수 재무관료 보내고**  
**은행장은 파격적으로 내부서 발탁**  
**정부·금융기관 효율성 동시 제고**



스마트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The JoongAng Plus에서 연재 중인 사공일 회고록: 경제국정, 이랬다 시리즈를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화는 지금도 잊지 않는다. 국회의원 식당에서 변호사 출신인 홍 의원과 만났다. 곰탕을 함께하며 홍 의원이 특히 비르고 있다고 알려진 대우의 경남기업 인수 건에 관해 대화를 시작했다. 먼저 경남기업 공개 부도처리 시 당장 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사우디 건설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일들, 그리고 당시 경남기업의 주거래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의 대외 신뢰도 실추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가 전체의 외자 조달 문제 등을 설명했다.

이러한 당시 사정상 비공개로 제3 인수를 물색해 일단 현장 기업 활동을 이어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나와 김만제 당시 재무장관이 사우디 현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사후 처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현대건설을 먼저 접촉해 정주영 회장과 이명박 사장을 만났으나 즉석에서 거절당한 일을 공개했다. 그 이튿날 김우중 회장을 만났고, 대우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제삼자 인수로 결정된 전 과정을 그대로 설명했다.

나의 진지한 설명을 들은 후 홍 의원은 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추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합리적 지원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홍 의원은 국정감사 때에 부실기업 정리와 관련해 호의적 발언도 해주었다.

또한 평민당 창당 초기부터 정책의장으로 당의 정강·정책과 선거 공약을 주도했던 김봉호(국회 부의장 역임) 의원과도 수차례 만났다. 물론 그에게도 부실기업 정리의 내막을 소상히 설명했다. 그 이후부터 김 의원은 나에게 공사 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구순을 넘긴 김 의원과 나는 지금까지도 친교를 이어오고 있다. 다소 거동이 불편하지만 얼마 전에도 만나 식사를 같이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당시 재무위의 어느 야당 의원이 내가 추진해 온 특정 정책에 동감하고 장관 칭찬성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휴식시간에 당 지도부로부터 받은 쪽지를 보여줬다. "당신, 여당이요, 야당이요"라고 적힌 손글씨 쪽지였다. 정치적 여유가 보이는 당시 여소야대 국회에서 경험한 일이다.

91년 5월 워싱턴에 머물며 『세계 속의 한국경제』를 집필하고 있을 때였다. 88년 재무위에서 활동했던 민주당의 김정수 의원은 보건사회부 장관으로 미국을 방문한 길에 잠시 들렀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연락을 줘서 조찬을 함께했다.

나는 88년 12월 5일 6공 초기 내각의 전면 개편 때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날 저녁에 정순덕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재무위원회 의원들이 나를 위한 초청 만찬을 열었다. 놀랍게도 이임하는 장관 환송 모임인 이 만찬에 재무위원 총 29명 중 지역구 사정으로 불참한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기념패도 받아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다.

전혀 다른 세상의 먼 옛날 정치권 이야기만으로도 들릴 수 있는 오늘 우리 정치권 현실이 안타깝다.



198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사공일 재무장관이 홍영기, 김정수 의원 등 재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